



포항 스틸러스 강상우가 15일 스틸야드에서 펼쳐진 수원FC와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이날 풀백이 아닌 원어로 출격한 그는 1골·1도움으로 3-1 승리에 앞장섰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김기동 감독 향한 강상우의 고마움 “더 큰 선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

수원FC전 1골1도움...분위기 반전 승리 앞장 “포항에 강상우밖에 없다?...좋은 선수들 많아 경기 안 좋을때마다 민규 이야기 나올까 걱정”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게 군 복무 시절은 굳이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강상우(28·포항 스틸러스)는 15일 수원FC전 맹활약 이후 “작년 상무 때 느낌이 나더라”고 회상했다. 2020시즌 상주 상무에서 측면 공격수로 뛰며 7골·5도움을 올린 그는 8월 전역 후 포항에서도 기세를 이어가며 K리그1(1부) 도움왕(12개)에 올랐다.

1년여가 흐른 이달 15일 강상우는 수원FC전에 풀백이 아닌 왼쪽 원어로 출전해 1골·1도움을 올리며 팀의 3-1 승리에 앞장섰다. 전반 15분 선제골을 넣고 김기동 포항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다. 강상우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감독님이 15분까지 공격에서 잘하는지 지켜 보겠다고 하셨는데 딱 그때 끝이 나왔고”고 설명했다.

수원FC전 승리는 포항에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경기력 저하와 송민규(22·전북 현대)의 이적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으로 인해 망가지던 팀 분위기를 회복하는 계기였다. “결과도 좋았고 골을 많이 넣어 긍정적”이라고 수원FC전을 평가한 강상우는 “흐름이 좋은 팀을 이겨서 모두 자신감을 얻었다”며 달려진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군 복무 시기를 빼면 포항에서만 뛰 강상우는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팀의 레전드인 김 감독과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입대 전에 수석코치님, 작년엔 감독님으로 만났는데 ‘더 큰 선수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다”고 밝힌 그는 “포항이 어렵다고 해도 리그 최소 실점 2위(24골)고, 3위 수원 삼성(승점 34)과 승점이 같다”며 김 감독의 지도력에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강상우는 송민규의 공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적 과정에서 사령탑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생긴 논란과는 별개로 에이스의 이탈에 “이제 포항엔 강상우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라 감사하지만 포항에는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많다”며 겸손함을 보였지만, “다만 경기 내용과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송)민규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상우는 팀 득점이 지난 시즌 1위(56골)에서 올 시즌 9위(25골)까지 떨어진 문제의 해결도 자신했다. “시즌 초에 기대치가 높았다.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부담이 많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본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적응하는 단계고,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제 임상협(33)이 강상우와 함께 포항 공격을 책임진다. 임상협은 최근 2주간의 부상 공백을 깨고 수원FC전을 통해 복귀해 강상우의 프리킥을 헤더골로 완성하는 등 멀티골을 뽑아냈다. 강상우는 “처음에 누가 골을 넣을 줄 몰랐는데 잘생긴 사람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임)상협이 형인 걸 알았다”며 “앞으로도 좋은 플레이를 위해 초콜릿이나 식사 대접으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은 9월 A매치 휴식이 전까지 FC서울, 전북, 수원을 만나는 강행군을 치른다. 특히 25일과 다음달 1일에는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전북전을 앞두고 있다. 강상우는 “일단 이번 주 경기만 생각하고 있다”며 “(상위권 도약) 좋은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 다음달부터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벤투호의 고민

# 테러·내전...시리아·이라크 원정이 문제다

모두 여행금지국가, 제3국 개최 가능성 시리아, UAE...이라크는 카타르 유력 코로나 확산에 모든 지역 봉쇄한 이란 ‘원정팀 무덤’ 아자디스타디움서 개최 축구협 “안전이 최우선 철저히 준비”

날짜	상대	홈/원정	비고
2021. 9. 2	이라크	홈	
9. 7	레바논	홈	원정→홈 변경
10. 7	시리아	홈	
10.12	이란	원정	
11.11	UAE	홈	
11.16	이라크	원정	
2022. 1.27	레바논	원정	홈→원정 변경
2. 1	시리아	원정	
3.24	이란	홈	
3.29	UAE	원정	

한국축구의 당면 과제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이 펼쳐진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9월 2일 이라크와 최종예선 A조 1차전 홈경기(서울월드컵경기장)를 시작으로 안방 3연전을 치른다. 9월 7일 레바논(수원월드컵경기장), 10월 7일 시리아(미정)를 잇달아 상대한다.

문제는 원정이다. 대표팀의 첫 번째 원정은 10월 12일 예정된 이란전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란축구협회는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맞붙길 원하지만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최근 이란 정부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자국 내 모든 지역을 봉쇄했다. 병원, 시장 등의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뿐, 지역별 이동이나 다중시설의 영업은 금지됐다.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결과다. 이란 현재의 의료 수준과 감염병 대처능력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A매치 개최가 어렵다.

걱정거리는 또 있다. 테러와 내전 위험이 끊이지 않는 위험지역으로의 이동이다.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라크는 불안정한 자국 사정을 고려해 이미 카타르 도하에서 최종예선 홈경기를 소화하기로 했다. 외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공식 발표만 남았다는 게 축구계의 관측이다.

2006독일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을 이끈 딕 아드보카트 감독(네덜란드)에게 지휘봉을 맡긴 이라크는 아시아 2차 예선 대부분을 제3국에서 치른 바 있다. 2019년 10월 홍콩전을 자국 내 바스라에서 치렀을 뿐, 나머지 경기들은 요르단 암만과 도하에서 펼쳐졌다. 한국도 11월 16일 이라크 원정경기를 도하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된 시리아 원정은 내년 2월 1일 로 잡혔는데, 제3국 경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리아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2차 예선 경기들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샤르자에서 소화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카타르 또는 UAE 원정에 대비해야 한다. 경기장, 훈련장, 숙소 등 현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란의 경우 축구 열기가 뜨겁고 홈 개최 의지가 강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원정은 중립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A대표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치른다.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해선 제3국에서 펼쳐질 원정경기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 박지성과 함께 추진한 전북 ‘B팀’...2022시즌 K4 합류

(아트바이저)

K리그1(1부) 전북 현대가 지속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B팀(전북B)을 구성해 2022시즌 K리그 하위리그인 K4리그에 합류시킬 계획이다.

전북은 올해 초부터 2군 선수단 형태의 전북B를 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팀 운영에 대한 미그림을 한창 그려가고 있다. 이미 큰 틀도 세웠다.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까지 편성했다.

명목상 운영이 아닌, 연간 15억 원 이상



박지성 아트바이저

을 투자해 제대로 된 육성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허병길 대표이사, 백승권 단장, 구단 실무진이 최근까지 국내에서 업무를 함께 한 박지성 아트바이저와 꾸준히 대화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과 익산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며, 원정도 1군 선수단과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 하루 전 이동시켜

선수단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클럽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책임진 베테랑들을 중용하면서 세대교체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전북은 18세 이하(U-18) 유스팀 영생고가 최근 2021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차세대 자원 육성에 한층 강한 추진력을 얻은 상태다.

전북 관계자는 “유소년 프로젝트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예비 스타의 성장을 돕고 실전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2군선수단 형태...연 15억 이상 투자 “미래 투자...에비스타들 성장 도울 것”

다”고 B팀 운영의 취지를 설명했다.

프로 B팀의 K4리그 참여는 처음이 아니다. 올 시즌 강원FC가 B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차 이사회를 통해 구단 산하 2군 팀이 공식적으로 하위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 B팀은 국내에선 낯선 개념이지만, 유럽에선 육성군의 성장무대로 활용돼왔다. 전북은 프로·준프로·아마추어 등 3가지 카테고리 구분된 선수등록에 따라 탄력적으로 B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정현 기자

## 女축구대표팀, 세계 최강 미국과 평가전

10월 22·27일 두 차례 원정경기 아시안컵 본선 앞두고 전력 가늠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과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미국과 10월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19일 대한축구협회는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이 10월 22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칠드런스 머시 파크, 27일 세

인트폴 알리안츠 필드에서 미국과 친선경기를 펼친다고 발표했다. FIFA 랭킹 1위의 미국은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4차례씩 우승한 강호다. 한국은 미국과 역대 전적에서 3무10패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될 아시안컵 본선에서 5위 안에 들어가 2023년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이에 앞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아시안컵 예선에서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맞



폴린 벨 감독(앞)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이 10월 22일(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27일 세인트폴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미국과 2차례 친선경기를 펼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붙는다. 미국과 2차례 평가전은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